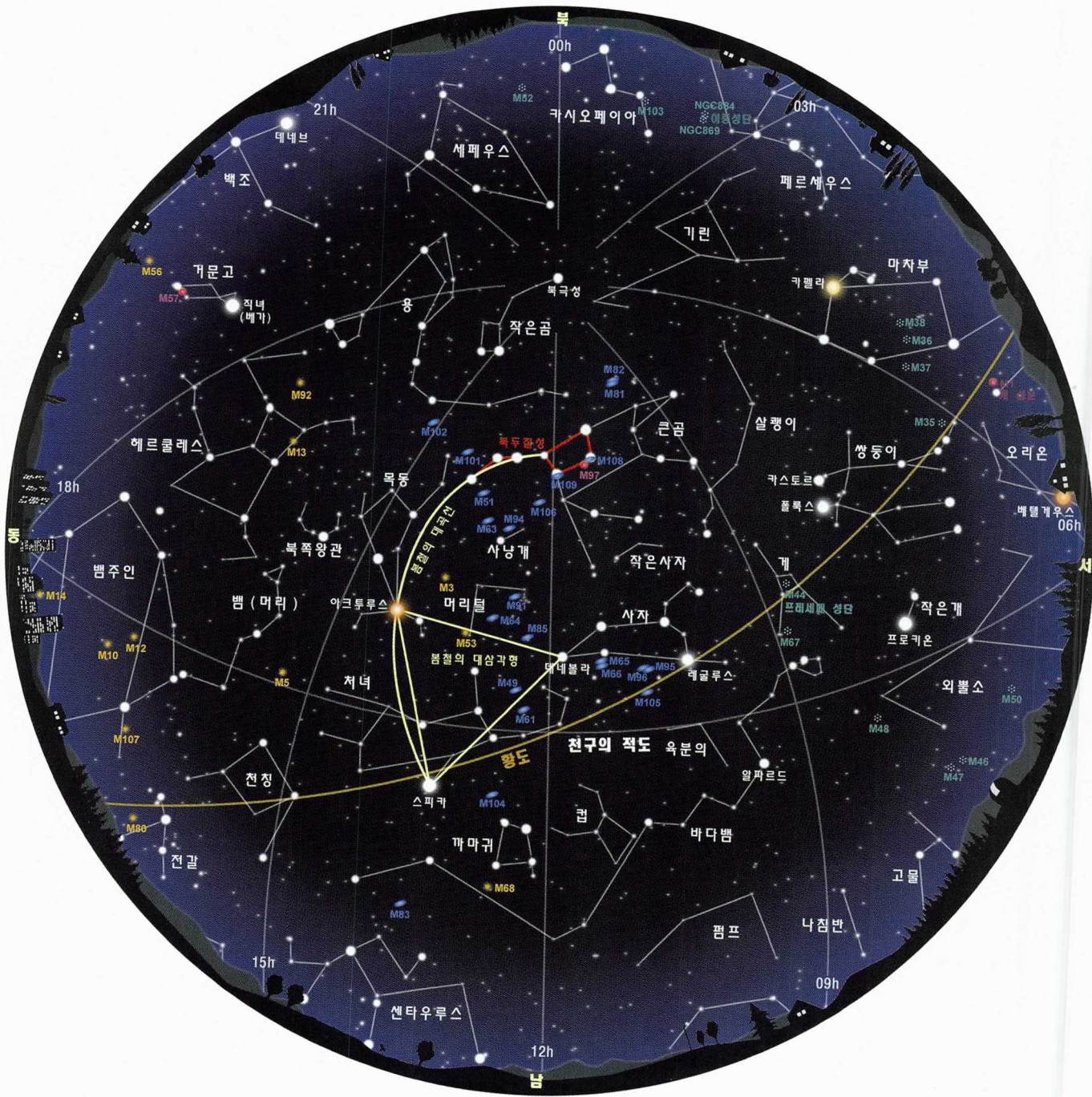


5.6월의 천문 현상



※ 성도 사용법

이 성도에는 6.5등급보다 밝은 별과 주요 성운, 성단, 은하, 달, 행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. 보통의 지도와 달리 성도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바뀌어 있다.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성도를 위로 들고 성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용한다.

성도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5월 1일 22시, 6월 1일 20시 기준이다.

성도 범례	
● 1등급	※ 산개성단
● 2등급	● 구상성단
● 3등급	● 성운
● 4등급	● 은하
● 5등급	
● 6등급	

주요 천문 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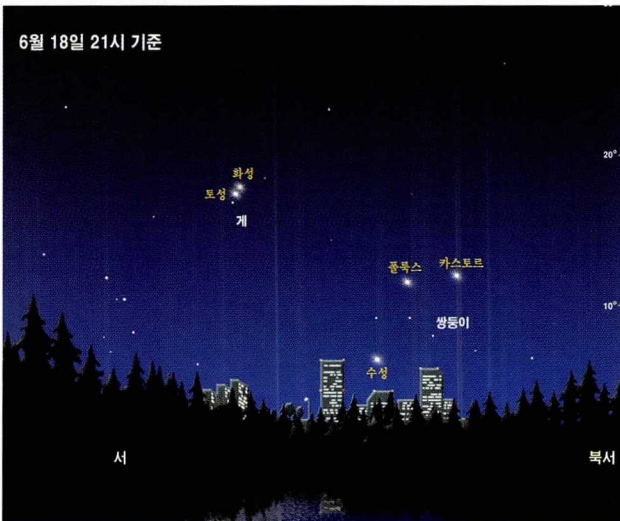
5월

5일	00:00 목성 총 14:13 상현
6일	00:31 입하(태양 황경 45°)
8일	13:44 물병자리 에타 유성우 극대(ZHR:10)
13일	15:51 망
19일	05:00 수성 외합
20일	18:21 하현
21일	13:32 소만(태양 황경 60°)
23일	02:00 해왕성 유(동-서)
27일	14:26 합삭

6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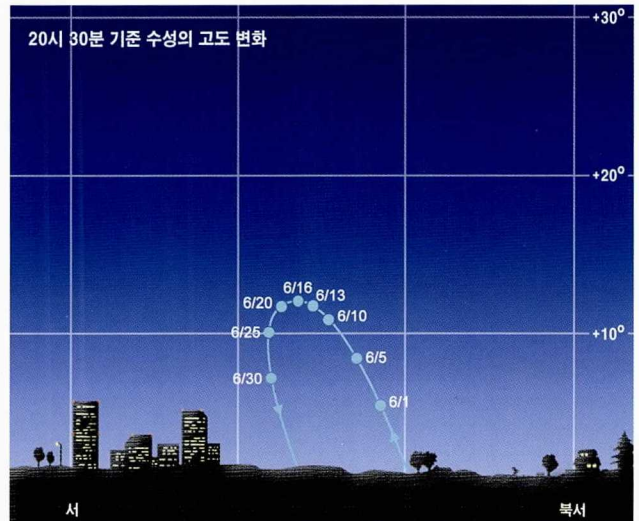
4일	08:06 상현
6일	04:37 망종(태양 황경 75°)
12일	03:03 망
17일	02:00 명왕성 총
18일	23:08 하현
20일	00:00 천왕성 유(동-서)
21일	21:26 하지(태양 황경 90°) 05:00 수성 동방최대이각(25°)
26일	01:05 합삭

6월 18일 화성과 토성 접근



6월 18일 밤 화성이 토성 가까이 접근한다. 두 행성이 접근했을 때 각거리는 약 34'. 달의 겉보기 크기가 약 30' 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다. 이 때 두 행성이 지나가는 별자리는 게자리이며, 이 별자리에 속한 유명한 산개성단인 프레스페페 성단이 주변에 있어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. 화성은 이에 앞서 15일에서 16일 사이에 프레스페페 성단을 통과한다. 프레스페페 성단은 광공해가 없는 곳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밝은 성단이다. 도시에서도 날씨가 맑다면 쌍안경을 이용해 볼 수 있고, 15일에서 18일 사이에는 화성과 토성, 프레스페페 성단을 한 시야에 관측할 수 있다. 다만 게자리는 봄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해가 진 후 화성과 토성이 나타나는 시간에 서쪽 지평선 근방에서 볼 수 있다. 따라서 서쪽 하늘이 트인 곳에서 관측하는 것이 좋다. 두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수성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.

6월 21일 수성 동방최대이각



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은 천구에서 항상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 진 후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볼 수 있을 뿐이다. 지동설로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도 평생 수성을 못 보고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수성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측하지 않는 한 보기 어려운 행성이다. 수성을 보기 가장 좋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최대이각 시점이다. 보통 1년에 서방최대이각과 동방최대이각이 각각 세 차례 정도 있다. 그런데 최대이각이라고 항상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. 수성과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는 시간이 비슷하면 관측이 어렵다. 오는 6월 21일의 동방최대이각을 전후로 한 시기는 관측 조건이 매우 좋다.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일몰 30여 분 후인 밤 8시 30분쯤 고도가 10° 이상으로 특별히 높은 산이나 건물이 없다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.